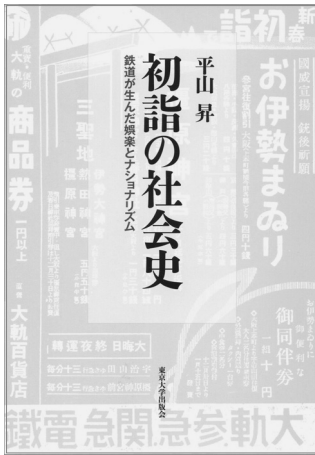


하쓰모데(初詣)의 사회사: 철도가 낳은 오락과 내셔널리즘

이세봄 _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平山 昇, 『初詣の社会史 鉄道が生んだ娯楽とナショナリズム』(東京大学出版会, 2015)

1. 하쓰모데의 등장

일본의 정초 뉴스에서 매년 볼 수 있는 광경 중에는 새해 첫 참배, 즉 하쓰모데(初詣)를 하기 위해 메이지 신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신사와 절에 모여든 인파의 모습이 있다. 도쿄 시내에 있는 메이지 신궁의 경우, 정월 초하루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이른바 三が日) 기간 동안의

참배객 수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며, 같은 기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방문하는 신사나 절의 수는 전국적으로 열 군데가 넘는다. 오늘날 이처럼 전 국민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하쓰모데에 대해, 일본인 자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전통’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하쓰모데는 언제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통’인 것일까?

하쓰모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참배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몰리는 신사나 절의 위치가 대부분 도심부에서 멀다는 점이다. 수도권 경우, 메이지 신궁에 이어 많은 참배객을 자랑하는 곳은 도심으로부터 떨어진 가와사키 다이시(川崎大師)¹⁾나 나리타산(成田山)²⁾으로 이 두 곳에도 역시 300만 명 전후의 참배객이 방문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도시권에서도 가장 많은 하쓰모데 참배객 수를 자랑하는 곳은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져있다. 왜 굳이 사람들은 하쓰모데를 위해 교외로 가는 것일까?

히라야마 노보루의 최근 저작인 『하쓰모데의 사회사: 철도가 낳은 오락과 내셔널리즘』(동경대학출판회, 2015)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하쓰모데는 메이지 이후 철도와 깊은 연관관계속에서 성립하여 20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정착하게 된 이른바 ‘근대적’인 행사이다. 동시에 이는 소위 ‘위’로부터 강제된 인위적인 내셔널리즘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반 서민의 ‘밑’으로부터 시작된 자발적 움직임이 발단이 되어 성립된 흥미로운 현상이다.

1) 가와사키 다이시는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있는 平間寺의 속칭.

2) 치바(千葉)현 나리타(成田)시에 있는 나리타산 신쇼지(新勝寺)의 속칭.

2. 하쓰모데와 철도

히라야마에 따르면 ‘하쓰모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885년 1월 2일 『東京日日新聞』의 기사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872년 도쿄의 신바시(新橋)에서 요코하마 사이에 일본 최초의 철도노선이 부설되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노선을 달리는 급행열차가 정월 초의 가와사키 다이시 참배객들을 위해 평소에는 정차하지 않는 가와사키역에 정차했다는 얘기가 실려 있다. 현재까지도 이곳은 메이지 신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하쓰모데 참배객수를 자랑한다. 그리고 이 가와사키 다이시아말로 하쓰모데 성립의 발단이 된 장소였다.

정월에 신사나 절에 새해 참배를 하러 가는 일은 에도시대부터 존재한 풍습이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에도시대 사람들의 정월 참배에는 ‘언제’ ‘어디로’ 참배하러 가야할 지에 대한 자세한 규칙이 있었고, 이 규칙에 따라서 참배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 규칙에 의하면, 다이시(大師)의 경우 매달 21일이 기도의 효과가 있다는 엔니치(縁日)이기 때문에 1월 21일에 참배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또한 ‘어디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봤을 때 매해 정월마다 그 해에 복을 가져다주는 도시토쿠진(歳徳神)이 오는 방향인 에호(恵方)에 해당하는 방향에 있는 신사나 절에 가는 것이 에도시대의 상식이었다. 에호는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마다 다른 목표지를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매년 같은 곳으로 인파가 몰리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에도시대의 정월 참배의 모습과 지금의 하쓰모데를 비교해보면, 후자에는 이와 같은 ‘언제’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세세한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하쓰모데에는 ‘정월 동안 신사나 절 어디든 가서 참배하면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본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요인을 철도에서 찾는다. 가와사키 다이시

의 경우, 메이지 중기에 이르러서는 현재와 같이 정월의 엔니치나 에호와 상관없이 매년 정월 초하루에 참배객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가와사키 다이시는 가볍게 기차도 타고, (내려서는) 돌아다닐 수도 있”는, 즉 아직 기차에 타는 일이 일상적이지 못한 당시에 기차를 탄다는 특별함을 맛보면서 동시에 부담 없이 교외 산책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메이지 초기에 정착된 정월초의 휴일 기간 동안, 예전처럼 세세한 규칙들을 신경 쓰지 않고 행락지에 가는 기분을 겸해서 참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교외의 신사나 절이 갖는 큰 매력이었던 것이다.

유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하쓰모데가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된 신사는 오사카 남쪽 교외에 있는 스미요시 다이샤(住吉大社)이다. 에도시대까지는 에호에 따라서 찾던 이곳 역시 1885년 최초의 사립철도인 한카이(阪堺)철도의 정거장이 생기면서, 에호와 상관없이 정월 초에 찾는 하쓰모데의 신사로 자리 잡게 된다. 2009년의 조사에 의하면 스미요시 다이샤는 하쓰모데 참배객 수 전국 랭킹 7위에 올랐다.

이들 신사나 절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 이상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들을 포함하여, 아이치(愛知)현의 아츠타 진구(熱田神宮), 교토(京都)의 후시미 이나리(伏見稻荷) 등의 전국 10위권 안에 드는 유명 신사나 절 역시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 철도끼리 혹은 사립과 국립 철도 사이의 치열한 승객 쟁탈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승객(=참배객)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3. 하쓰모데와 내셔널리즘

이상과 같이 히라야마의 책의 첫 번째 논점은 초기의 하쓰모데가 서민의 오락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크게 부추긴 것은 철도였다는 부분에 있다. 이어서 본서의 또 하나의 논점은 하쓰모데와 내셔널리즘의 관계에 있다. 저자에 의하면 메이지 시대에 탄생한 하쓰모데가 원래는 서민의 오락 행사의 일환이었지만, 다이쇼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쓰모데를 황실과 ‘국체’와 연결시켜 논하는 내셔널리즘의 언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역할이다.

흔히 근대 일본에서의 내셔널리즘의 침투 과정에 대해서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도식을 사용하는 것이 암묵적인 전제가 되어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시책에 대해 ‘아래’에 있던 민중이 되받아치는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것 역시 발신자 자체는 ‘위에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다를 바가 없었다. 히라야마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정반대의 논의이다. 하쓰모데의 역사를 통해 민중의 문화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급되었고 ‘위’에서 다시 ‘아래’로 되받아치는 회로가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원래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은 하쓰모데를 미신을 믿는 서민들의 문화로 여겨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인들의 생각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912년의 메이지 천황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평유기원(平癒祈願)을 하기 위해 황거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본서에서는 그 모습을 본 지식인들이 천황을 생각하는 마음을 묘사한 표현으로써 ‘감정미(感情美)’라는 사료 용어를 선택했다. 이 단어에는 “형태는 모두 각양각색이지만 천황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하나”라는 지식인들의 깨달음이 녹아있다.³⁾

3) 황거 앞의 평유기원의 풍경에는 신토(神道)의 노리토(祝詞)를 읊고 있는 노인

서민들의 행동 속에서 발견된 ‘감정미’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서민들 사이에 천황을 향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통의 심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천황 존숭의 방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 이들은 “국민”의 신사인 메이지 신궁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메이지 신궁은 기존의 에도시대 신앙과는 합치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물 없이 새롭게 정착한 참배 형식이었던 하쓰모데와는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는 그 때까지의 신사가 독점적으로 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데 반해,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전후로 한 시기에 지식인들이 발견한 ‘감정미’를 통해 신사와 황실의 관계는 독점적이면서 더욱 체계화되어 갔다는 의미이다. 창건 직후부터 메이지 신궁에서는, 신도의 원리상 원래 가장 중요한 제일인 예제(例祭, 메이지 천황의 생일인 11월3일)보다도 정월 초의 하쓰모데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쓰모데를 고대부터 내려온 황실의 정월 행사인 시호하이(四方拜)와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언설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

4. 본서의 의의

본서의 구성은 크게 3부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메이지 시대 도시부에서의 하쓰모데의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메이지에서 다이쇼기로 천황의 대가 넘어가는 시점을 계기로 그때까지 거의 전적으로 서민들만이 즐기는 정월 행사였던 하쓰모데에 지식인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하쓰모데가 내셔널리즘과 접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마치

의 모습, 교육칙어를 제창하고 있는 청년 단체, 반야심경을 외는 사람들, “아멘”을 외치는 구세군의 모습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본서 제3장 「니쥬바시(二重橋) 앞 평유기원과 메이지 신궁 창건 논쟁」 참조.

막으로 제3부에서는 다이쇼기 이후의 하쓰모데가 내셔널리즘과 맞물려 갔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오락성이 축소된 것이 아니며, 오락과 내셔널리즘이 뒤섞임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부터의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국민” 행사가 되어 오늘날까지 강고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쓰모데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 “전통”이 전 국민적인 행사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다. 히라야마의 연구는 이 과정을 밝혀내면서 내셔널리즘의 형성 과정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특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 방대한 양의 당시 신문 기사 내용들이 이 책을 읽는 이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철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신선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초 일본사 속에서의 황실과 신사를 둘러싼 논의의 변천 과정까지를 보여주는 본서는 일본 근대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日本空間